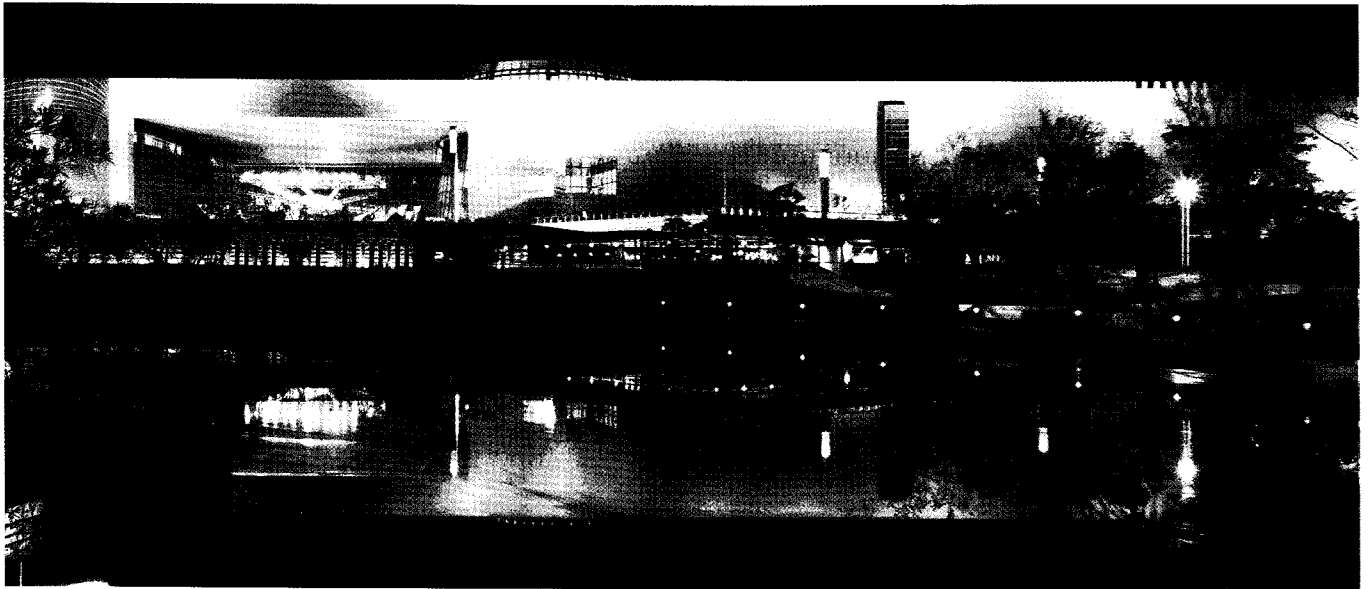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 조명디자이너 고기영

사람에게 이로운 건강한 빛을 담다

제주 나인브릿지 골프장,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남대문의 서울스퀘어, 충무로 대한극장 등. 이 공간의 공통점은 고기영 조명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밤이 낮보다 아름다운 공간을 수놓는 조명디자이너. 그녀가 생활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지난 1월 12일 한남동 '비츠로' 사무실에서 고기영 대표(48세)를 만났다.





고기영 조명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자연광과 인공광의 조화가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가운 공간에 따뜻한 생명을 주는 작업을 하는 조명디자이너 고기영 대표는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 “빛은 사람에게도 공간에도 꼭 필요하지요.”라고 말하는 그녀가 만들어내는 빛은 그 옛날 한옥에서 새어나오던 호롱불처럼 따뜻한 빛이다.

“10년 전, 발리 리조트에 묵은 적이 있어요. 그날따라 전기가 나가 모든 조명이 꺼졌지 뭐예요. 리조트 입구에는 30~40m의 나무 진입로가 캄캄하게 있는데, 그 사이로 은은한 촛불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인상적이던지, 그 따뜻한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조명디자인 속에 그 따뜻함을 담는다. 초기 작품인 제주 나인브릿지 골프장은 가로등 하나 없이 빛을 담아냈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자연광과 인공광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완성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빛은 화려한 빛이 아니라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건축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빛이다. 그래서일까. 그녀의 공간 ‘비츠로’ 역시 은은한 조명들로 채워져 있다. 어느 공간에나 있을 법한 천장 전체 조명이 없음에도 공간 전체가 커다란 반사판이 되어 빛을 품어줘 공간 전체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가득 찼다. “천장 위의 조명은 직접 내리쬐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져요. 빛도 조절이 필요하죠.”

조명디자이너가 말하는 건강에 좋은 빛이란 어떤 빛일까. 고기영 대표는 건강한 생활을 돕는 빛이 좋은 빛이라고 말한다. “공부하는 공간이라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레스토랑이라면 맛있게 식사할 수 있고, 병실이나 침실이라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돕는 조명이 좋은 빛이죠.(웃음)”

이러한 그녀의 건강한 조명관은 그동안 굵직굵직한 작품에 적용되었고 앞으로도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한 빛을 디자인하는 조명디자이너는 본인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까? “빛은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4차원의 예술이죠. 특별한 건강관리보다 음악을 연주하듯 즐겁게 일을 합니다.”

고기영 대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총괄 빛 연출을 준비하고 있다. “빛으로 완성될 공간을 먼저 상상하면 그 상상력이 에너지가 됩니다.” 빛에 따라 같은 공간도 다른 분위기로 연출될 수 있고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선물할 추억을 생각하며 고기영 대표는 오늘도 빛을 디자인한다. **MEDI^YCHECK**

고기영 대표는 건강한 생활을 돕는 빛이 좋은 빛이라고 말한다. “공부하는 공간이라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레스토랑이라면 맛있게 식사할 수 있고, 병실이나 침실이라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돕는 조명이 좋은 빛이죠.”